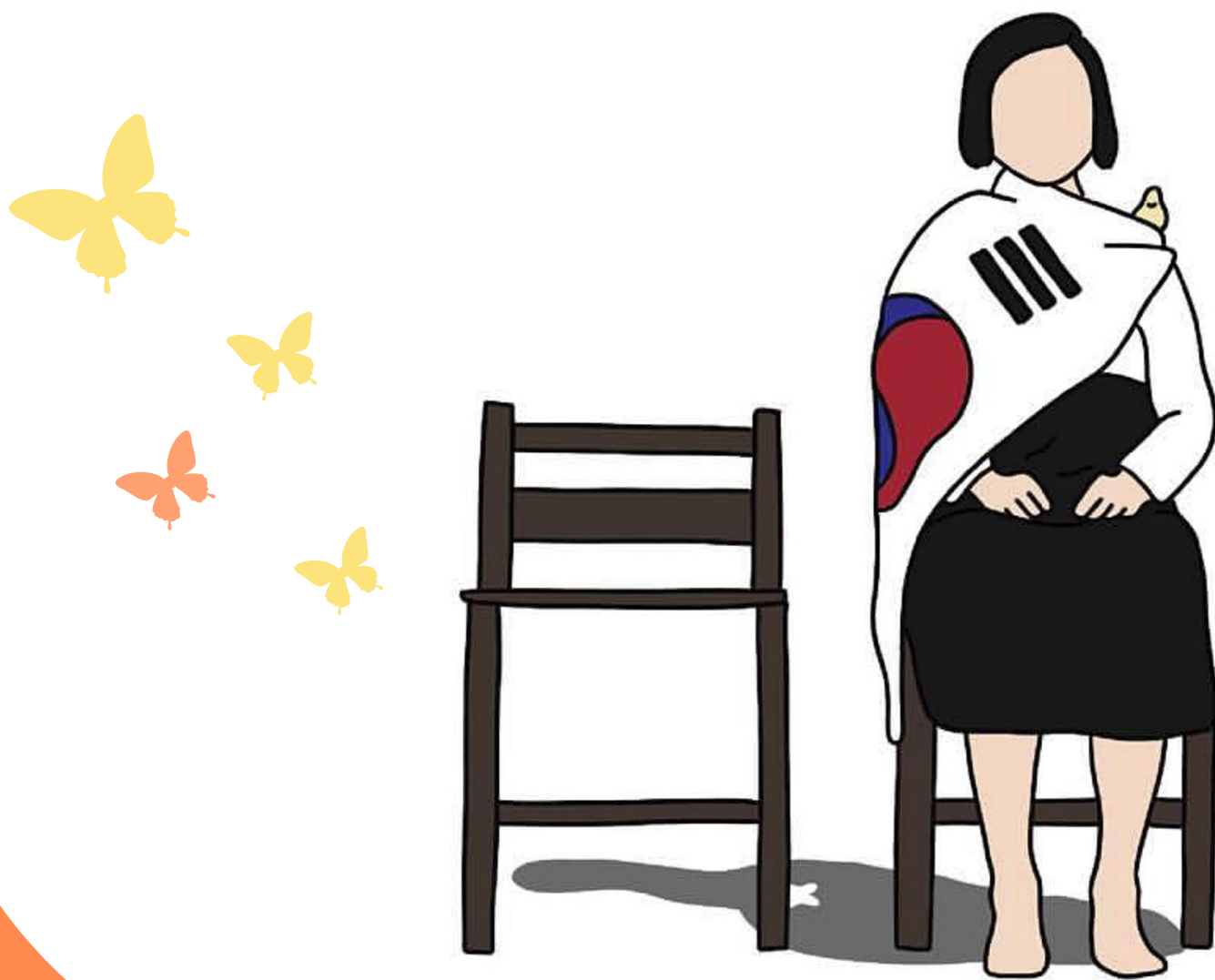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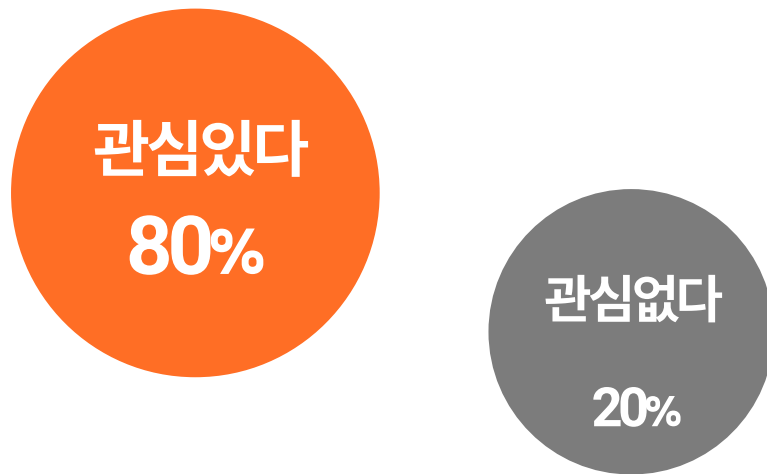
카드뉴스 제61호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14)

기억의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픈 역사,
국민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

Q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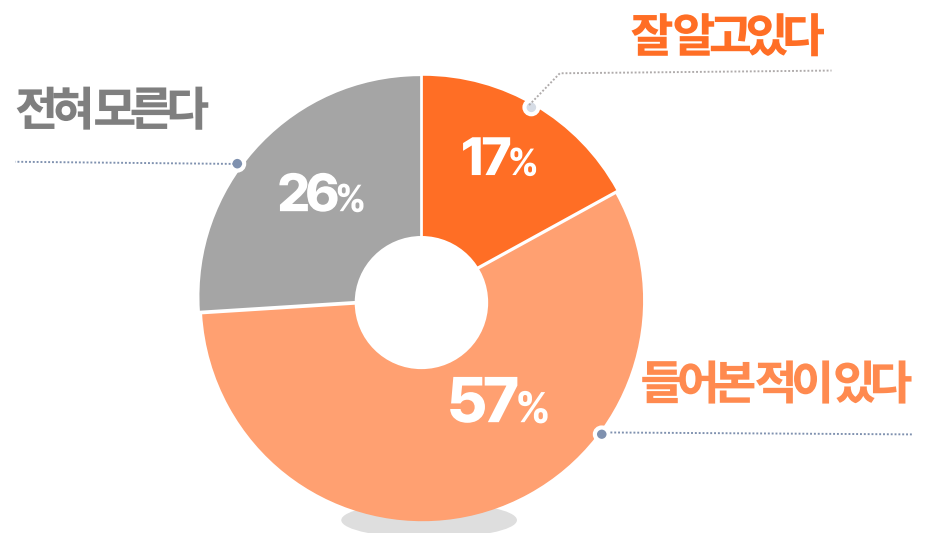
10명 중 7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Q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인지도

(전체 1,142명)

...

1991년 8월 14일은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날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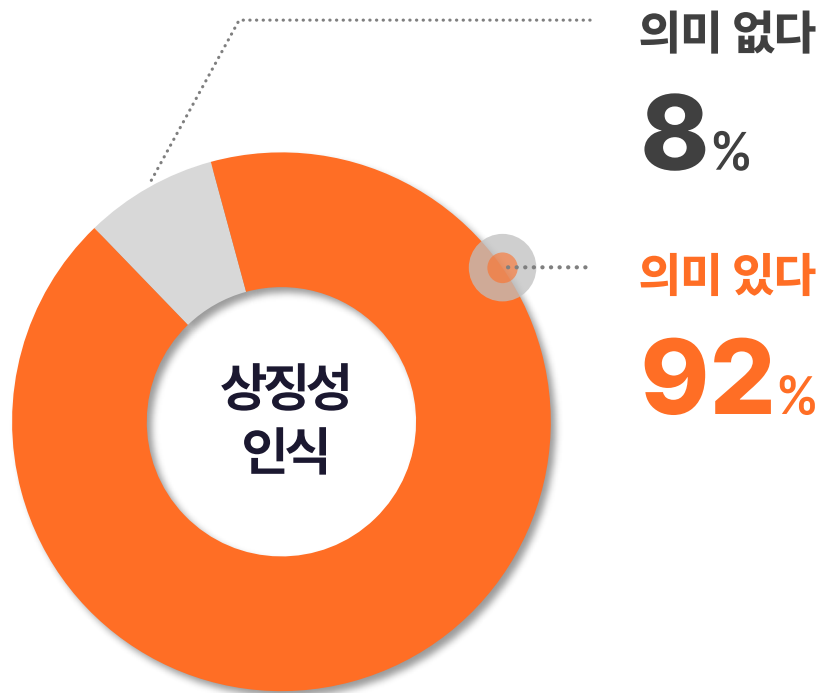


국민들은 평화의 소녀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

10명 중 8명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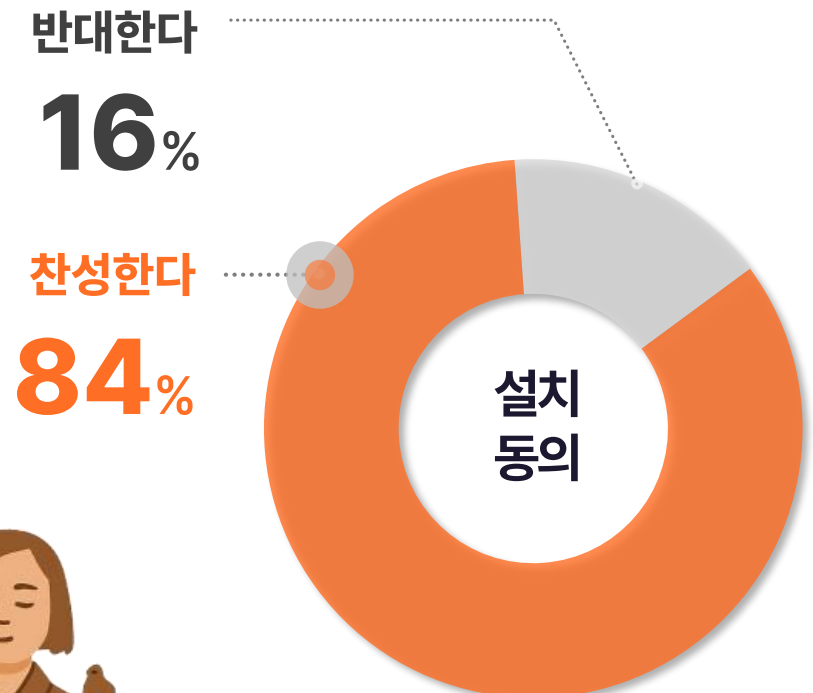
평화의 소녀상의 설치 목적과 상징성에 대한 인식



(전체 1,142명)



내가 사는 동네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동의



(전체 1,142명)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 응답자의 77%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

Q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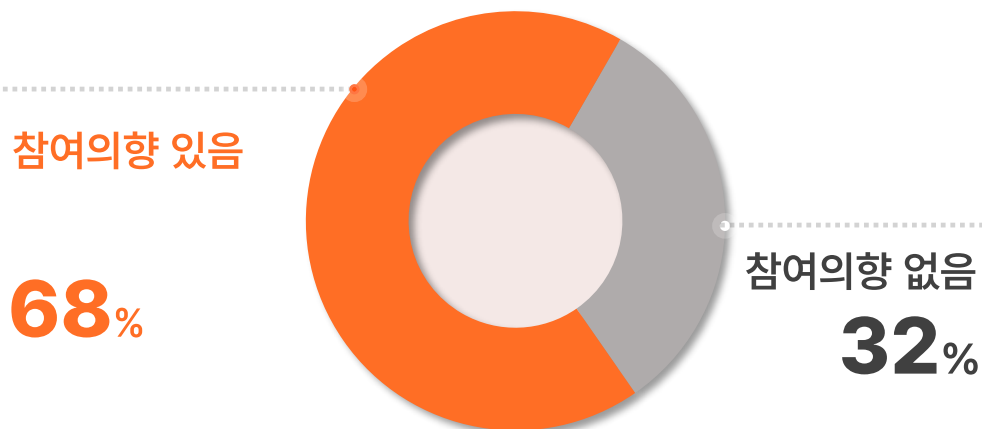
(전체 1,142명)



10명 중 7명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에 참여 의향 있음

Q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기림일 캠페인, 소녀상 설치, 후원 등) 참여 의향

(전체 1,142명)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조사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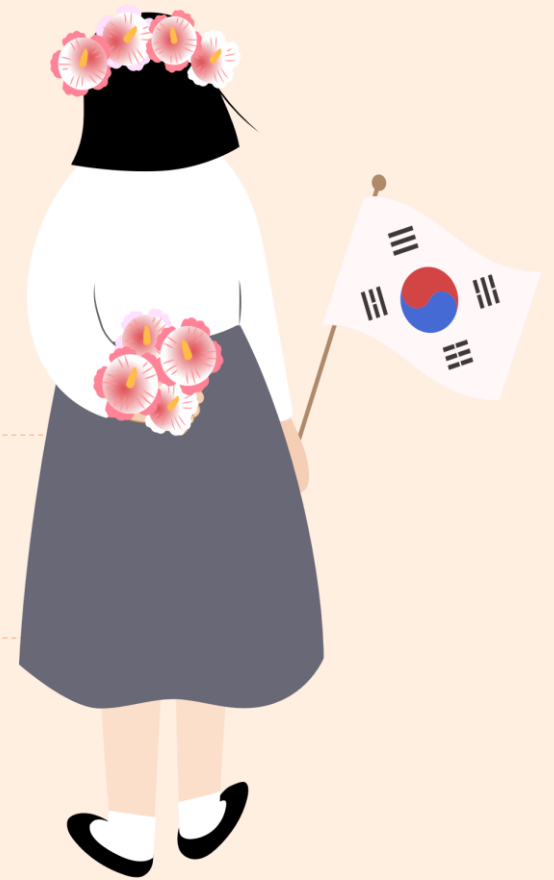
▶ 2025.07.11~1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142명



케이스탯은 품질 높은 데이터 생산을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Kstat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02-6188-6000



admin@kstat.co.kr